

지볼트의 족욕탕

이 족욕탕과 근처에 있는 온천 시설 ‘지볼트노유’는 1823년에 일본을 방문한 독일 의사이자 식물학자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Philip Franz von Siebold*, 1796~1866)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볼트는 일본의 동식물과 민속문화에 대해 수집하고 메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 관한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그가 남긴 저작물은 근대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1826년, 지볼트는 나가사키 항구에서 나가사키 가도를 통해 규슈 북부의 고쿠라까지 여행했습니다. 우레시노는 당시 현재의 두 배 이상의 온천 료칸이 있었으며, 온천 거리로 번화했습니다. 지볼트가 이곳을 지날 때 온천에서 발의 피로를 풀기 위해 이 족욕탕에 들렀다고 합니다. 이 온천수의 수질에 관심을 가진 지볼트는 남들보다 빨리 우레시노의 물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볼트의 족욕탕은 규슈 올레 우레시노 코스의 종점입니다. 지친 여행객들이 지볼트처럼 온천에서 발의 피로를 푸는 곳이 되었습니다.